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⑬ 간화선의 출현과 전개



▶ **한줄 요약**
선종사에서는 공안선과 문자선과 간화선의 순서로 형상되어 왔는데, 이들 선수행의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선종 대표적 화두 무자화두 탄생

1. 공안의 출현

공안선(公案禪)은 공안에 대하여 기록하고 사유하며 참구하고 전승하는 것으로써 선수행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안(公案)은 경론 내지 선어록 등에서 발췌한 일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단의 내용을 일컫는다. 이 경우에 공안은 납자 자신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래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식과 납자 사이에서 문답의 주제로 활용하거나 가르침의 소재로 활용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유행되어 오면서 보편적인 의미가 확보된 경우에 해당한다. 곧 불조가 개시해준 불법의 도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까닭에 납자가 분별식정(分別識情)을 버리고 참구하여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공안은 일정한 시대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더불어 초시대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런 만큼 공안은 사사롭게 정의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부여된 법칙과 같은 기능을 담보하고 있는 일정한 내용의 글 내지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문의 법어 내지 문답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안은 공공문서로서 공부(公府)의 안독(案牘)에 비유되어 법칙의 조항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유행되어 왔다.

그 모습은 당대(唐代)에 시작되어 송대(宋代)에 크게 성행하였는데, 선문헌으로 〈운문광록〉에서는 현성공안(現成公案)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한다. 이 경우 현성공안은 공안이 안전에 드러나 있다는 의미로 활용되었다. 그래서 공안은 납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의식의 수단에 해당하는 화두의 측면과 더불어 깨달음 자체의 측면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유행되었다.

2. 간화선의 출현

송대에는 당 시대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수많은 공안을 중심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며 일종의 수행방법으로까지 활용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공안의 기능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공안을 채택하여 그것으로써 그 의미를 확인하고 체험하며 타인에게 가르침의 수단 내지 불조의 가르침을 파악하는 기관(機關)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공안 본래의 기능이 점차 보편적인 수행법으로 정착되어 갔다. 그 가운데 공안선(公案禪)이라는 의미는 공안을 가지고 염롱(拈弄)하고, 공안에 의미를 부여하며, 공안 그 자체를 불조의 교화방편으로 이해하여 납자가 수행의 근거로 사용하는 수행가풍을 말한다. 따라서 공안선은 반드시 고래로부터 전승해 온 공안에 근거하여 그것을 수행방식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안의 선수행이고 공안에 대한 선수행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점차 보편성이 확보되면서 그 공안에 대하여 각 어절마다 또는 구절마다 짤막한 주석을 붙이기도 하고, 내용 전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붙이기도 하며, 전제적인 대의를 제시하기도 하고, 공안이 내용을 독립적인 게송으로 표현하는 등 기타 유행을 창출해내기에 이르렀다. 이 경우에 짤막한 주석은 착어(著語)라고 말하고, 자세한 설명은 평창(評唱)이라고 말하며, 전체적인 대의를 제시한 것을 수시(垂示)라고 말하고, 공안에 붙이는 게송을 송(頌)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불조가 개시한 공안을 가지고 수행하는 납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견해를 붙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타인에게 다른 견해를 구하기도 하며, 그것으로써 선지식에게 자기의 견해를 점검받기도 하고, 납자를 지도 내지 교화해주는 방편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유행이 널리 번져갔다. 이와 같은 방식을 수행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문자선(文字禪)이라고 말한다. 곧 문자선은 공안을 바탕으로 거기에 문자를 활용하여 자신의 깜냥을 발휘하여 비평하는 것으로 수행법을 삼는다는 점에서 공안선에 대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자선의 경우 공안에 대하여 갖가지 분별을 부여하고, 또 다른 분별을 유도해준다는 점에서 제방에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공안에 대한 납자의 견해를 피력하고 후인을 위한 참고로 활용하도록 안내해준다는 점에서 선수행의 역사에서 송대에는 공안선과 더불어 크게 유행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선문헌이 등장하였고, 공안만 선별하여 공안집으로 엮어내기도 하였으며, 납자의 견해를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교화 내지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선문에서는 문자선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문자선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수많은 선문답을 제시함으로써 납자의 경지를 점검하는 일종의 시험 내지 통과의례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문자선에서 공안은 선지식에게는 일종의 시험문제이기도 하였는가 하면, 납자에게는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관문의 역할로 부여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로 곧 묵조선(默照禪)의 수행에서는 공안이 다양하게 그리고 널리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자선으로 인하여 드러난 역기능은 공안으로 분별심을 조장하고 점차 형해화되며 도그마적인 모습을 갖추어가게 됨으로써 처음에 공안이 출현했을 때의 참신한 측면이 점차 사라지고 경력 쌓기 내지는 언어유희의 측면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로써 문자선의 분별적인 병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점차 공안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공안을 더 이상 문자놀음의 대상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그 자체를 정신집중의 방법, 그리고 제반의 번뇌를 타파하는 무기의 측면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소위 간화선(看話禪)의 수행법으로 출현하였다. 따라서 간화선은 한편으로는 공안선이 지니고 있는 공안 전체에 대한 사유와 참구라는 기능을 벗어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자선이 지니고 있는 언어문자의 분별과 도그마라는 기능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출현하였다. 그것은 바로 일찍이 불조에 의하여 개시되었던 공안 가운데서 특수한 대목만 끌어내어 그 언구를 중심으로 그 어떤 견해도 가하지 않고 오로지 언구 그대로 두고 그것만 참구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하여 참구하는 방법이었다.



조주의 일화 공안으로 삼아 무자화두 탄생시킨 화두화한 오조법연. 사진제공=정운 스님

공안 수행으로 활용한 공안선 출현
공안서 문자 활용 진일보한 문자선
채택한 언구 자체에 집중한 간화선
법연, 조주 일화서 무자 화두화 해

이로써 간화선은 단출한 언구를 채택하여 그 언구에 대한 분별의 사유를 가하지 않고 언구 그것에만 집중하는 까닭에 대단히 특수한 수행법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공안에서 채택된 언구에 대하여 일체의 질문과 답변, 경전의 인용과 사유, 선지식의 안내와 설명 등에도 의거하지 않은 채, 자신이 채택한 언구를 언구가 지니고 있는 자체의 의미까지도 부정하고 일종의 이미지로 삼아 거기에 집중적으로 참구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수행의 방식으로 인하여 간화선의 수행법은 대단히 특수한 양상을 지니게 되었다. 곧 간화선에서는 특정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 까닭에 정해진 답변이 없고, 그 어떤 사람과 동일한 답변이 없으며, 반면에 동일한 언구에 대해서도 무수한 답변이 가능하고, 언구 자체에 맛이 없고 색이 없으며 냄새가 없고 소리가 없어 몰자미(沒滋味)한 상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올바른 답을 끌어내주는 기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활구(活句)로 통한다.

이에 선종사에서는 공안선과 문자선과 간화선의 순서로 형상되어 왔는데, 이들 선수행의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가령 공안선은 불조가 개시해준 공안을 통째로 들어 사유하고 참구하는 것으로 공안을 전제(全提)하는 방식이라면, 문자선은 공안에 대하여 문자를 동원하여 능력껏 개인의 견해를 가하여 비평하는 자세로 수행 및 접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고, 간화선은 공안 가운데서 특수한 부분의 언구를 선택하여 그 언구를 중심으로 언구 자체에 대해서만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마음으로 참구하는 것으로 공안을 단제(單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각각 구별된다.

예를 들어본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등 간화선의 전통을 지켜온 선종사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화두로써 제기되어 있는 무자화두(無字話頭)에 대하여 〈굉지선사광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승이 조주 종심(趙州從諗, 778~897)에게 물었다. "강아지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유(有)" 승이 물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강아지의 가죽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개의 몸을 받은 것이다." 또 승이 조주에게 물었다. "강아지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무(無)" 승이 물었다. "일체중생개유불성(一切衆生皆有佛性)이라는데 어째서 강아지에게는 무(無)라고 하는 것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강아지한테는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위에 인용한 공안이 전체에 대하여 그것을 대상으로 사유하고 문답하며 참구하는 수행법은 공안선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의 공안에 대하여 굉지 정각(宏智正覺, 1091~1157)은 "조주는 유(有)라고도 말했고 또 조주는 무(無)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강아지의 불성은 천하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얼굴이 반반해도 말이 곧은 것만 못하니, 마음이 진실하면 말이 거칠어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 칠백 갑자의 노련한 선백인 조주 종심(趙州從諗)도 때로는 사람에게 속아 눈동자를 나귀 똥과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비평하였다. 위의 글은 고스란히 고려시대 진각 혜심(眞覺慧諶, 1178~1234)에게 인용되어 〈선문염송〉에 수록된 이래로 한국의 선문헌에서 무자화두의 전형으로 오늘날까지 계승되어오고 있다. 그리고 무문 혜개(無門慧開, 1183~1260)는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불성은 불법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 만약 자칫하여 유무에 걸리면 그대로 목숨을 상실하게 된다."는 송을 붙여서 비평하였다. 굉지 정각 및 무문 혜개와 같이 공안에 대하여 비평을 붙이는 경우를 가리켜 문자선이라고 말한다. 한편 위의 공안 가운데서 '무(無)'라는 글자만 끌어내어 '무자(無字)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참구하는 경우는 간화선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무자화두의 경우에도 조주의 일화에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직 화두(話頭)라고 말하지 않는다. 조주의 일화는 단지 무자화두의 연원에 불과할 따름이다. 조주의 그 일화가 본격적인 화두로서 생명과 기능을 가지고 출현한 것은 북송시대 오조 법연(五祖法演, 1024~1104)이 조주의 일화를 공안으로 삼아 납자들에게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기관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가능하였다. 이렇게 보면 간화선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무자화두가 탄생한 역사는 아직 천년이 채 되지 않은 셈이다. 이후로 원오 극근(圓悟克勤, 1063-1135) 및 그의 제자 대혜 종고(大慧宗杲, 1089~1163)에 이르면서 무자화두는 선종사에서 대표적인 화두로서 기능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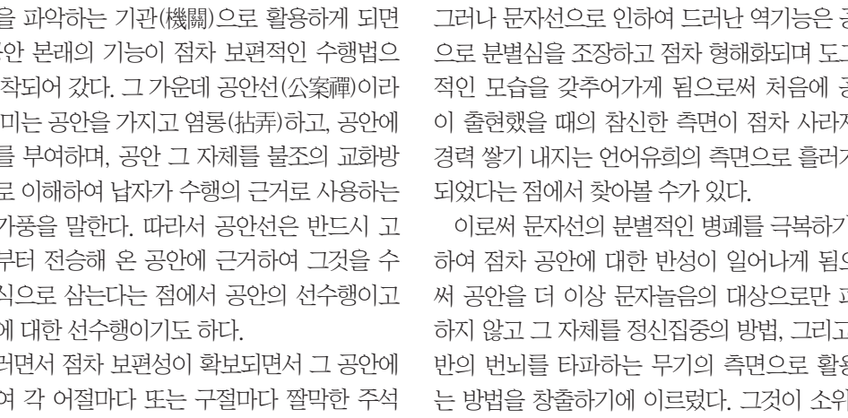
〈동국대 HK교수〉

GmSoft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투자자 구함

• 납골당및 사찰 건립예정
• 투자금액 40억원 1년이내 상환
• 수익금 40억은 4년 이내 지급
• 담보해드림
• 화장장 10분 거리(서울인근)
• 잔고증명서 확인후 상담

☎ 010-6545-2020
신화불사

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8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목	2시~3시30분	00명 (2년)
의식전문반	•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법 각종 사찰행사전문반 • 전통예능 (범음범패 :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운심게, 오공양소리, 진령게, 사다라니, 욕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칭양성호, 관욕게, 합장게,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수	2시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수	3시30분~	
국악기반	태평소, 대금		5시~	

■ 개강일시 : 2021년 9월 8일(수) 오후 2시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영남불교예술대학